

참고 1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주요 품목별 상세

① (화장품 : 50.7억 달러, +30.7%) 미국은 북미 내 온·오프라인 채널확대 (콘텐츠 커머스, 현지 리테일 팝업·체험형 마케팅 등)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9분기 연속 최대 수출국 유지

○ 유럽은 폴란드·네덜란드 등 물류 거점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'22년 3분기 이후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유지

* 주요 권역별 수출규모('25→'26,억\$) : (북미) 7.8 → 10.6 (+36.8), (유럽) 7.7 → 12.6(+62.4), (중동) 1.9 → 1.9(△0.6), (중남미) 0.5 → 1.2(+131.9)

○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은 8,135개사로 전년(7,498개사)대비 8.5% 증가, 신규(+7.2%) 및 유지(+9.3%) 기업도 각각 역대 최대 기업수를 기록

* 화장품 수출중소기업 수 (천개사, '25→'2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%) :
↳ (전체) 7.5 → 8.1 (+8.5), (신규기업) 2.8 → 3.0 (+7.2), (유지기업) 4.7 → 5.1 (+9.3)

* 세부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\$/%) : 기초화장품 23.2(+34.8), 기타화장품 13.8 (+36.1), 마스크팩 2.6(+53.0), 메이크업용제품 2.5(+4.2)

* 역대 화장품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 ('26) 50.7 → 역대 2위 ('25) 38.8 → 역대 3위 ('24) 32.9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미국 9.6(+34.5), 중국 5.5(△2.4), 일본 4.3(+18.5), 홍콩 3.0(+25.9), 폴란드 2.4(+79.3), 러시아 2.2(+27.3)

② (자동차 : 33.1억 달러, △15.2%) 18개월간('24.7.~'25.12월) 이어진 對 CIS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최근 3년 평균 수준을 기록, 중동 사태에 따른 UAE 수출감소에도 사우디, 시리아 등 대체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동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보합 수준

* 자동차 반기별 수출증감률(%) : '24.하 +19.0 → '25.상 +73.3 → 하 +78.1 → '26.상 △15.2

* 연도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액(억\$) : ('22~'25년 평균) 24.6, ('24~'25년 평균) 30.8 → ('26년) 33.1

* 주요 권역별 수출비중/증감률('25→'26,%) : (CIS) 57.2 → 52.1(-5.1%p), (중동) 20.0 → 21.1 (+1.1%p)

* 역대 자동차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 ('25) 39.1 → 역대 2위 ('26) 33.1 → 역대 3위 ('23) 25.2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키르기스스탄 95(△23.3), 러시아 26(△36.5), 카자흐스탄 22(△32.2), 알바니아 20(+58.5), 사우디아라비아 16(+65.2), 타지키스탄 13(+23.2)

③ (플라스틱제품 : 23.1억 달러, +2.1%) 세부품목 중 스마트폰필름류의 (+0.6%, 비중 63.3%) 중국의 수출감소세 지속에도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필름류, 용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마감하고 증가세로 전환

※ 세부품목별 수출액/비중(억\$,%) : (스마트폰 필름류) 14.6(비중63.3%), (용기) 4.0(17.4), (관파이프) 1.4(6.0)

* 플라스틱제품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('25) 22.6(+0.9) → ('26) 23.1(+2.1)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미국 5.2(+0.4), 중국 3.7(△2.1), 베트남 3.3(+4.8), 일본 1.8(+9.6), 대만 0.7(+13.0), 멕시코 0.6(+1.3)

④ (반도체 : 22.8억 달러, +48.3%)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요 확대 및 단가 지속 상승으로 홍콩(전년비 +168.5%, 글로벌 반도체 유통허브로 14개월 연속↑), 베트남(국내기업의 현지 공장향 수요↑) 등 아시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
* 반도체 분기별 수출증감률(%) : ('25.3Q)+12.0 → ('25.4Q)+13.0 → ('26.1Q)+56.1 → ('26.2Q)+41.3

※ 세부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\$,%) : (시스템) 9.8(+29.4%), (메모리) 9.0(+180.3%)

* 역대 반도체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 ('26) 22.8 → 역대 2위 ('22) 15.4 → 역대 3위 ('25) 15.4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홍콩 8.5(+168.5), 베트남 5.2(+17.5), 중국 3.6(+11.0), 대만 1.3(+74.3), 태국 1.0(△4.6), 미국 0.5(+22.6)

⑤ (자동차부품 : 21.2억 달러, +1.4%) 최대 수출국인 미국(+7.3%)은 현지 완성차생산 확대 및 글로벌 부품기업으로의 수출 증가 등 본격적인 관세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2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

* 자동차부품 분기별 수출증감률(%) : '25.3Q+2.7 → '25.4Q+9.0 → '26.1Q+0.0 → '26.2Q+2.8

* 자동차부품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('25) 20.9(△1.9) → ('26) 21.2(+1.4)
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미국 6.2(+7.3), 멕시코 2.1(+0.1), 일본 1.8(+23.5), 중국 1.0(△16.3), 베트남 0.9(△15.2), 우즈베키스탄 0.7(+0.1)

⑥ (반도체제조용장비 : 20.3억 달러, +33.2%) AI 반도체 칩 제조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된 대만(+46.3%), 싱가포르(+84.4%), 말레이시아(+59.2%) 등 주요 수출국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
* 역대 반도체장비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 ('26) 20.3 → 역대 2위 ('22) 18.8 → 역대 3위 ('23) 16.6
 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중국 8.5(+19.3), 대만 3.5(+46.3), 미국 2.7(+33.2), 싱가포르 1.8(+84.4), 일본 1.2(△14.7), 말레이 0.7(+59.2)

⑦ (의료기기 : 17.0억 달러, +5.9%) 미국(영상진단 의료장비수요↓)의 수출 감소에도 일본(의료용 레이저 기기↑), 중국(임플란트 등 고령화 관련 의료기기 수요↑)으로의 수출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2위 실적 기록

- 그외 수출국인 對브라질, 인도의 미용 의료기기(고주파, 레이저 등) 수요 확대로 '26년 상반기 수출 증가세를 견인

* 역대 의료기기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 ('22) 34.0 → 역대 2위 ('26) 17.0 → 역대 3위 ('23) 16.5
 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미국 2.5(△4.7), 일본 1.5(+2.8), 중국 1.2(+1.0), 브라질 0.8(+15.9), 인도 0.7(+47.1), 러시아 0.7(△1.4)

⑧ (합성수지 : 15.7억 달러, △10.2%) 중동 사태 이후 나프타 수급 차질과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생산 위축과 국내 물량 우선 공급에 따라 주요국 수출(중국·베트남·미국 등)이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6월 반등에도 불구하고 '26년 2분기 연속 감소세로 마감

- 세부품목중 플라스틱 용기 재료인 폴리스티렌(△77.8%)과 범용 플라스틱 소재인 ABS수지(△63.1%)가 주요국 중심으로 감소

* 합성수지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('25) 17.5(+7.3) → ('26) 15.7(△10.2)
 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중국 3.6(△14.4), 베트남 3.0(△11.3), 미국 1.2(△25.6), 인도 0.9(+6.4), 튀르키예 0.7(△2.3), 인니 0.7(△5.1)

⑨ (금은빛백금 : 15.0억 달러, +93.9%)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금 수요 증가로 주요 수출국인 홍콩(비중 57.2%)을 중심으로 1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실적 기록

※ 금은빛백금 수출 단가(달러/kg) : ('25) 1,375.9 → ('26) 2,226.4 (+61.8%)

* 역대 금은빛백금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 ('26) 15.0 → 역대 2위 ('25) 7.7 → 역대 3위 ('10) 6.9
 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홍콩 8.5(+34.5), 싱가포르 2.4(+55.245.8), 태국 1.3(+1,658.2), 스위스 0.7(+162.3), 중국 0.4(+112.6), 영국 0.4(+85.5)

⑩ (계측제어분석기 : 12.8억 달러, +30.2%) 베트남(+58.8%, 국내기업의 현지 공장向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수요↑), 인도(+46.5%, 무선통신 시험장비 제조기업 수요↑), 대만(+66.1%, 반도체 검사장비↑)등 주요국을 포함한 수출 증가세가 7개월 연속 이어지며 상반기 역대 최대실적 기록

* 역대 계측제어분석기 수출액(억 달러) : 역대 1위 ('26) 12.8 → 역대 2위 ('17) 12.3 → 역대 3위 ('22) 12.2
 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 달러, %) : 중국 2.8(+30.7), 베트남 1.9(+58.8), 미국 1.7(+16.0), 인도 0.9(+46.5), 일본 0.9(+36.1), 대만 0.8(+66.1)

<2026년 상반기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(단위 : 백만 달러, %) >

구분		1분기	증감률	2분기	증감률	상반기	증감률	비중
1	화장품	2,258	+25.6	2,812	+35.0	5,069	30.7	7.9
2	자동차	1,472	△15.1	1,839	△15.4	3,310	△15.2	5.2
3	플라스틱 제품	1,071	△1.1	1,237	+5.1	2,308	2.1	3.6
4	반도체	1,132	+56.1	1,151	+41.3	2,282	48.3	3.6
5	자동차부품	1,014	+0.0	1,105	+2.8	2,119	1.4	3.3
6	반도체제조용장비	905	+26.8	1,129	+38.9	2,033	33.2	3.2
7	의료기기	790	+4.2	909	+7.5	1,699	5.9	2.7
8	합성수지	733	△16.8	838	△3.5	1,571	△10.2	2.5
9	금은빛백금	757	+164.8	738	+52.1	1,495	93.9	2.3
10	계측제어분석기	586	+26.5	695	+33.4	1,280	30.2	2.0
10대 소계		10,736	+15.1	12,453	+14.7	23,168	14.1	36.2
전체 합계		30,091	+10.3	33,910	+12.7	64,000	11.6	100.0